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.30원 상승한 1,362.60원에 마감

1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.30원 상승한 1,362.6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달러-원 1개월물 상승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3.20원 상승한 1,364.5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를 반영하여 환율은 1,367.20원까지 상승했다. 그러나 고점 인식 속 매도물량 유입에 상단은 제한되며, 1,362.6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6.3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12.99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64.50	1367.20	1360.40	1362.60	1363.70
	엔화	912.10	916.69	909.49	910.52	-
	유로화	1482.33	1487.65	1478.69	1479.99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01	-5.94	-12.55	-23.11
	결제환율(수입)	-0.75	-4.8	-10.73	-19.82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트럼프 승리 베팅에...1,36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2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62.60) 대비 2.30원 상승한 1,362.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고조 및 파운드화 약세 등에 따른 강달러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관세 부과, 세금 인하 공약 등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. 영국 9월 CPI는 전년대비 1.7% 상승하며 예상치(1.9%)를 하회했다.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5.6%에서 4.9%로 상승폭을 축소했다. BOE의 금리인하 가속화 가능성 상승에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했다. 이에 달러인덱스는 0.31 상승한 103.52를 기록했다. 한편 아다치 BOJ 심의위원의 완만한 금리인상 발언에 달러/엔 환율은 0.42엔 상승한 149.63엔으로 마감했다. 달러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금일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물량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 및 미국 소매판매 데이터 발표를 앞둔 관망세 등은 환율의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59.67 ~ 1368.33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6574.39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3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3077.7, +337.28p(+0.79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3.25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5821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